

[논평] 조상호 시장 100일, ‘행정수도 완성’과 ‘민생회복’의 기반을 세우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조상호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취임 100일에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을 보냅니다.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시고, 지난 100일 동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100일은 이전 시정이 남긴 어려움을 바로잡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자족기능 확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실천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시민과 시정부가 하나 되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범국민 결의대회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굳은 의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조상호 시장 역시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8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강한 추진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막중한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4년 동안 세종시정이 헤쳐가야 할 현안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전 시정부 시절 악화된 재정 여건 속에서 보통교부세 확충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 유치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서도 구체적인 결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읍·면 지역과 신도심 간의 격차를 좁혀, 모든 시민이 함께 잘사는 세종시 내부의 균형성장을 달성해야 할 막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조상호 시장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시정과 ‘원팀(One-Team)’이 되어 세종의 대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동시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소통·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역할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습니다.

조상호 시장을 비롯한 세종시 공직자 모두가 제5기 세종시정이 출발하던 첫날의 초심을 잊지 않고, 오직 ‘시민의 삶’만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조상호 시장이 늘 강조했던 시민여상(視民如傷)의 정신을 끝까지 실천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경쟁력이 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과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조상호 시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